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불교교육과 명예교수

우리사회가 도덕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개탄의 소리는 귀에 면역이 될 정도로 들어왔다. 그래도 이런 개탄의 소리는 유사 이래 현자들의 저술 속에서도 항상 있어 왔고,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이 그렇게 도덕적일 수만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안시켜 왔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 보기도 끔찍하고, 듣기도 끔찍하고, 말하기도 끔찍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동안의 위안이 얼마나 안이한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일곱 살 어린 자식(신원영)을 굶기고, 학대하고, 살해하고 그리고 암매장한 친부와 계모의 자녀살해 사건은 '천륜의 붕괴'란 용어를 무색하게 만든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계모 김모씨는 모바일게임에 빠져 원영이를 굶기고 따뜻한 겨울을 하나 사주지 않으면서 게임머니에 4천만을 썼다고 한다. 몇 년 전에는 목사가 자녀 3명을

살해한 민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자녀를 살해한 '비속살인'은 우리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다. 어쩌랴, 아직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와 비속살인이 다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나 등교하지 않고 행방불명된 아동 중에서 비속살인의 희생이 된 경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와 비속살인은 다른 범죄사건과는 고뇌의 차원이 전혀 다르다. 이 범죄는 가족 관계의 붕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최초의 인간관계인 가족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칙이나 예절을 배운다. 가족은 첫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기본 단위로 구성원의 도덕성을 길러주는 최초의 교육 마당이다.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사회의 토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정과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 결혼률, 이혼율, 출산율 등 가정과 가족관계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통계를 보면 우리의 현실 앞에서 멍해진다. 그런데 지구촌 저 쪽에서 황당한 착각이 있었으니, 2011년 노

르웨이에서 기관총으로 1백 여 명을 사살한 극우 청년 '브레이크 비크'는 그의 일기장에서 한국의 가정문화와 가족관계에 대하여 부러워하고 있는 내용을 수십 차례나 썼다고 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가정의 구조와 가족 관계의 변화는 사회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옛 가족윤리의 미덕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파트촌으로 변한 고향의 문전옥답을 그리는 것과 같다. 문제는 그 변화가 매우 파행

건강한 가족은 사회의 토대

공염윤리로 문제해결 나서야

적이고 바람직한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녀학대와 비속살인 사건을 보면 거의가 30대 부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한다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만큼 책임과 도덕의식이 필요하다는 통계를 보면 우리의 현실 앞에서 탄탄 하는 것은 회피이다. 가정 붕괴와 가족 해체로 인한 비인륜적 문제를

결코 개인의 비도덕성과 무지로 돌릴 수만은 없다.

불교에 업(業) 이론이 있다. 붓다가 당시 외도들의 속명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출발한 업 이론은 자신의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개인 차원의 업을 넘어 사회적 차원의 업인 공업(共業)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사회구성원과 사회구성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공업이다. 우리는 아동학대와 비속살인을 개인의 부모덕성에 분노할 할 것이 아니라 공업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前 수상 토니블레어는 집권 공약으로 '가족가치의 회복(restoration of family value)'을 내세웠고, 집권기간 동안 이의 실천을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였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뜬구름 같은 큰 이념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신이 허망해지기도 한다. 이제 우리는 붓다의 공염윤리를 바탕으로 함께 아파하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공염윤리의 정립방안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다.

社說

전국비구니회 변화, 기대한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회칙 제개정 을 통해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와 운영 전 반을 결의하는 운영위원회, 지역 의결기 구인 지회를 정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4일 전국비구니 회관 법통사 3층 법당에서 제9차 정기총 회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주목된 것은 그동안 불분명한 조항으로 내부 갈등을 일으켰던 '전국비구니회 회 칙'에 대한 제개정이었다.

회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최고 의결 기관 총회 활성화 △운영위원회 지회 대 내부 갈등을 일으켰던 '전국비구니회 회 칙'에 대한 제개정이었다. 회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최고 의결 기관 총회 활성화 △운영위원회 지회 대 내부 갈등을 일으켰던 '전국비구니회 회 칙'에 대한 제개정이었다. 회칙 개정의 주요 골자는 △최고 의결 기관 총회 활성화 △운영위원회 지회 대 내부 갈등을 일으켰던 '전국비구니회 회 칙'에 대한 제개정이었다.

특히 선출 기준이 불분명했던 비구니

중앙총회의원에 대한 자격 요건이 명시돼 투명성이 확보된 것은 중요한 지점이다.

사실, 회칙 제개정 요구는 전반적인 비 구니 대중 스님들의 목소리였다. 비구니 회는 지회 구성을 통해 제개정의 의견 수 령을 진행했고, 총회준비위원회의 논의 를 통해 회칙 제개정을 이끌었다.

원로회를 구성하고 장기 수의사업을 위한 비구니 사업단(가칭)과 비구니복지 후원회(가칭)의 설립 승인을 받은 것도 비구니회 발전을 위한 초석들이다.

비운 뒤 땅은 굳어진다라고 했다. 이처럼 표 참여 확대 △집행부 기구 정비 및 활동근거 마련 △비구니 중앙총회의원 선 출 절차 및 자격 기준 명시 △지회 활동 의 자육성 확보 근거 마련 등이다. 이 같 은 회칙 제개정은 지난해 불거졌던 내부 갈등을 넘어 결속력을 다지고 발전의 근 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재도약위해 다시 뭉친 불교환경연대

그동안 명맥이 끊겨 지지부진했던 불 교 환경운동이 다시 재도약을 하려고 한 다. 3월 21일 불교환경연대는 신임 공동 대표단을 꾸리고 제 2의 창립을 선언했 다. 불교환경연대의 역사는 200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환경 운동이 저변 확대 되면서 불교환경연대는 환경 파괴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주도적으 로 나섰다. 창립 후에는 북한산관동도로 건설저지, 천성산 살리기, 통영 미륵산 케이벨카 건설 반대 운동 등 범사회적 환 경운동을 펼쳤다.

이뿐만 아니라 서산 구리 남양주 강릉 광주 등 전국 지부를 활발히 창립하며 불 교 환경운동의 지평을 넓혔다. 불교계 환 경운동도 불교환경연대의 활발한 움직 임에 의거해 거의 10년 동안 전성기를 맞 았다. 하지만 10년을 기점으로 환경연대 에 위기가 닥쳤다. 당시 상임대표 수경

스님이 2010년 사퇴와 함께 집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도층 부재로 인해 '술 해 설가' 양성 등 환경교육활동만을 제한적 으로 실시했다.

6년여에 걸쳐 우리 뇌리속에 불교환경 운동이란 단어는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 져 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교환경연 대 활동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출범당시 활동한 사람 들이 다시 모여 새 대표단을 추천했고 재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지난 해 11월 발족했다. 첫 사업으로 4대강 사 업의 '재자연화'를 주창하며 '생명살림 100일 수행길'에 오른다. 이를 계기로 그 간 미약했던 활동에 대해 성찰하고, 아직 도 곳곳에 산재한 불교환경문제 해결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힘든 환경을 알면서 도 뒤늦게나마 잊지 않고 다시 모여 의 기투합한 새 대표단에 박수를 보낸다.

기자 칼럼



윤호섭
취재부 기자

"미래세대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 고자 합니다."

지난 1월 1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스님이 병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 일부다. 실제 자승 스님 뿐만 아니라 각종 인터뷰나 간담회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가 바 로 '미래세대를 위한~'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를 두고 얼마나 진 지하게 고민하고 있을까?

2015년 1월 조계종은 '중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 공사'를 출범하고, 가장 중요한 의제 로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정했다. 이후 2차 대중공 사에서 난장별 토론결과를 종합해 △ 미래세대위원회 발족 △불교대학학교 설립 △미래세대 위한 사찰공간 마련 등의 안을 발표했다. 3월 열린 3차 대 중공사에서는 당시 포교부장 송묵 스

님이 "미래세대위원회를 중령기구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포교원이 주관한 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한데 여전 히 감감소식이다. 굳이 소식을 뜯자면 여름 경 추무부서가 총무원 기획실로 바뀐 것 정도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중단활동이 단순히 포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논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 만 여전히 미래세대위원회 구성에 관 한 중령 제정도, 미래세대 범위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사실상 '잠정중단'이라고 봐도 무 방할 듯하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청년 불자들도 마치 예상한 결과인양 중단 에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2차 대중공사 에서 "미래세대위원회를 발족하는 것 은 의지 문제가 아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1년이 지난 지금, 진정 의지 문제가 아닌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자승 스님은 그동안 누차 '5'의 변화'를 강 조해왔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어 보 여도 방향을 5°만 돌려놓으면 세월이

흘러 뒤를 돌아봤을 때 큰 변화가 이 뤄졌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도 어디까지나 시작을 전제로 한다. 앞으 로 나아가지 않으면 돌아볼 게 있을 리 만무하다.

물론 올해 기획실에 미래세대 총책 연구 관련 예산으로 2500만원이 책정 돼 있긴 하지만 정책토론회와 연구개 발비 각 5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위원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부대 비용일 뿐이다.

그래서 이와 가장 크게 비교되는 것 이 바로 사부대중위원회다.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논란으로 지난해 7월 긴 급히 의제를 변경한 5차 대중공사에서 는 대중공의기구를 통해 재심논란 해 법과 중단 과거사 문제를 다루기로 했 다. 중단은 대중공사 결의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중단화합과 개혁을 위 한 사부대중위원회'를 중령기구로 발 족하고, 현재까지 전체 · 분과회의와 워크숍 등을 활발하게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일까. 최근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계획에도 사부대중위원회 보고에 있

지만 미래세대위원회는 없었다. 또한 얼마 전 열린 중앙총회에서 한 종회의 원스님이 총책직임을 통해 미래세대 위원회의 진행과정을 몰랐지만 역시 나 이렇다 할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순 없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 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아이를 바르게 길러내는 일이 쉽지 않 기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뜻 이다. 한편으로는 기성세대와 미래세 대가 순망치한(脛亡齒寒)의 관계라는 것을 잘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당장은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성을 실 감하지 못하더라도 그들도 결국 기성 세대가 된다는 점을 잊어서 안 된다.

한강의 기적 아래 태어난 아이들은 현재 헬조선에 살아가고 있다. 헬조선 에 태어난 지금의 아이들은 앞으로 어 떤 세상과 마주할까. 그리고 한국불교 는 과연 미래세대와 함께 어떤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봄의 시작을 알 린 3월도 어느덧 끝자락이지만 한국불 교가 신경 쓰겠다면 미래세대는 '춘래 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미래세대 지원, 아직도 요원한가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지장寶藏입니다! 선재등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외 선지식이를 찾아뵙고 선지식이 머무시는 도량에서 기도 정진하는 「108선지식 구도순례」법회 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차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 ◆ 일 정 : 2016년 4월 2일(토) ~ 3(일)
- ◆ 장 소 : 경북 봉화 영축산 조계종 축서사
- ◆ 소참법문 : 조실 무여스님
- ◆ 출발장소 :

- ① 4월 2일 오후 12시 30분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수운회관 앞
- ② 4월 2일 오후 1시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주차빌딩 앞

- ◆ 108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동참 문의 :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견正見과 혜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如一如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세가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서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까지 망라하여 탐방할 예정이다.
- 그동안 1,2차 구도순례 선지식 친견과 철야 기도정진 법회는 계몽산 학림사 오동선원(조실 대원 큰스님), 양평 선원사 용문선원(선원장 의정 큰스님)에서 진행됨.
- 「정법빠리사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제방 각지에서 참된 불자로 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며, 신심을 고양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다. 108 선지식과 수행처 탐방, 국내외 자비나눔 활동, 정법구현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등 신행 활동을 하고 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미타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 격월로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철야 기도정진 진행.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www.hyunbul.com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6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지사안내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